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5년
2016년 5월 4일
음력 3월 28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0년 제198호



효강 종령 봉축법어



오늘,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지혜광명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화합하여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길 서원하며,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행복과 희망, 선업과 복덕이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지진 및 자연재해로 인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조속한 피해복구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 우리 중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자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화합의 정신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며, 모든 중생들은 불성이 있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자연도 생명이 있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교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날 때부터 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한 자가 되고,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다. 또한 태어난 가문을 묻지 말고 그 행위를 물어라. 불은 온갖 습에서 일어난다. 천한 집에서 태어난 자도 성자와 같이 도에 대한 뜻이 굳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근신한다면, 곧 귀한 인간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출생, 이름, 성 등에 의한 차별은 없다고

하셨으며, 생사고락이라는 원리 앞에서는 누구나 동일하며, 그로부터의 깨달음에 있어서도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등 보이지않는 계층적 차별과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화합과 희망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중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서로 겸양하고 화합하여 살아가며, 자연과도 대립을 떠나 더불어 살아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중 종령 효강 합장

“참회와 감사의 마음으로 정진하자”

불교 총지중 제87회 춘계강공회 봉행



▲ 강공회에서 새 중풍운동을 다짐하는 스승들

“스승은 항상 먼저 참회하고, 모든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불교총지중 효강 종령 예하가 제87회 춘계강공회 개강불사에서 스승들에게 내린 법어다. 일상교화에 매진하는 스승들에게 총지중의 소의 경전과 수행 전통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인 제 87회 춘계 강공회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거제 대명콘도에서 열렸다. 총지중 기로 및 현직 스승 전원이 참석한 이번 강공은 개강법회에 이어 종령 정신교육,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와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의 교학 강의, 승단총회, 종강불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어와 정신교육에서 “진

국의 사원에서 교화에 매진하시는 스승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원경 대성사께서 총지중을 창종하신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계율을 잘 지키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세상 만물을 대하는 것입니다. 중생을 어찌 유정과 무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불성을 가진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진언 수행과 관법을 통해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어 가도록 합시다.”며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거의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인생살이의 고난도 늘어났고, 그만큼 수행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 것입니다. 교도들의 대하는 사고도 달라져야 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화 방편의 개발도 업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춘 새로운 교화 방편을 강조했다. 4월 27일 오후에 개최된 승단총회에서는 결원된 중앙총회의 의원을 선출하고, 종단의 주요 현황을 통리원으로 부터 보고 받았다.

총지중 통영 단향사

서원당 헌공 및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 봉행



▲ 불교총지중 통영 단향사 서원당 헌공 불사

불교 총지중 서부 경남 교회의 중심도량 통영 단향사가 서원당 헌공 및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를 봉행했다. 4월 26일 불교총지중은 효강 종령 예하를 모시고, 전국의 스승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통영 단향사(주교 해봉 정사) 서원당 헌공 및 양계 만다라 봉안 가지 불사를 재무부장 원당 정사의 사회와 총무부장 우인 정사의 집공으로 봉행했다.

본존제막으로 시작된 법회는 육법공양과 대비로자나불 호념 등 정통 밀교 의례로 진행됐다. 효강 종령 예하는 법문을 통해 “만 중생이 즉신성불을 이루 수 있는 진언 수행 도량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며 단향사의 발전과 수행 정진을 당부했다.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인사말에서 “먼 길 오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향사 교도 여러분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 내시고 새로운 서원당에서 편안하게 수행 정진 하시기를 서원합니다.”며 서원당 헌공 불사에 적극 동참하신 교도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단향사 주교 해봉 정사는 “효강 종령 예하와 전국의 스승 및 교도들의 동참 발원으로 이루어진 단향사 불사가 원만히 회향하고, 총지중의 진언 밀법이 온 세상에 비추기를 서원합니다.”며 봉행사를 부처님 전 올렸다. 단향사 신정회 김경진 회장은 “오늘 단향사 서원당 헌공과 만다라 봉안으로 불보살님들의 가지력으로 교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소원성취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며 불사에 동참한 사부대중들의 안녕을 서원했다. 통영 단향사는 통영시 도남동에 지상 4층 지하 1층의 신축 건물에서 서원당 헌공 불사를 봉행 했다.

인선 통리원장 봉축사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보다도 육도윤회의 수레바퀴에서 고

통 받는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뒤로한 채 출가하시어 깨달음을 얻고, 그날로 만중생의 깨달음을 위한 고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 중생의 본질을 깨닫고, 불성을 깨치는 것입니다. 자비의 눈빛으로 만 중생을 굽어 보시는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부의 양극화가 많은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조금씩 양

보하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입니다. 가진 자들은 자신의 부를 조건 없이 나누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다 더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화합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음이 온 세상에 울리고, 진리의 법등이 온 세상을 밝히는 불국토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불자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합장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선

중앙총의회 의장	수현	중앙교육원장	화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경
재무부장	원당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교정부장	법일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사회부장	지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정

중앙총의회 의원	법장원	총지중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중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만다라요양원·바리밀 공부방·초콜릿이집
전당건설 위원회	(재) 사회복지재단	원림어린이집 포레스트7단지 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김기자가 가다

진언 공덕은 반드시 우리가 확인 할 수 있다.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웃음 꽃이 핀 부산 덕화사



▲ 송봉득 보살과 손자 한해민 박사



▲ 백영숙 보살과 사위 이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대지의 만물이 푸르게 올라오는 신록의 계절을 맞은 부산 덕화사(주교 시정 정사)에는 요즘 웃음꽃이 만발하다. 종단의 입교 개종과 함께 진언 수행에 매진해 온 보살님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을 받아 집안의 경사가 이어졌다.

그 주인공은 송봉득 보살(85세)과 백영숙 보살(78세)이다. 덕화사에서 가장 불공을 열심히 하는 보살로 유명하다. 두 보살이 총지종에 입교해 수행을 하게된 계기는 다르지만 불공 공덕으로 자녀들이 나라를 위한 인재로 성장하는 결실을 봤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정치를 펼 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 당선자

먼저 백영숙 보살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살님의 사위가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에게 당선된 이훈 의원이다. 보살님의 무남독녀인 안선미 보살의 남편이다.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이 정계에 투신한 이 훈 각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박지원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야당에서 철저부심의 노력 끝에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다. 평소하고 잔정이 많고 남의 어려운 일을 자기 일처럼 나서 해결해주는 정의로써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훈 의원은 이번 20대 총선 출마 선언에서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 서민과 더불어 사는 사회,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승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민과 함께 민생, 민주, 평화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며 민생을 먼저 살피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훈 당선자는 과거 국회의원 박지원 비서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공보비서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관,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보팀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고, 현재 (사)행동하는 양심 이사, 더불어민주당 당무 혁신 실장을 맡고 있다.

백영숙 보살님은 사위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알았다. 언제나 일상처럼 매일 덕화사 서원당에 나와 자녀를 위한 불공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올렸다. 보살님은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 모든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 광명에 맡겨두었다. 그저 묵묵히 진언 수행을 했을 뿐이다.

백영숙 보살의 수행은 안장수 각자님과 혼인에서 시작되었다. 수행을 마치고 시대에 오니 어른들이 당시 진각종 심인당에서 진언 수행을 하셨다. 자연스럽게 수행을 받아들이고 입교하였다. 가까운 친척인 총지종 효강 종령 예하도 함께 밀양 상동에서 수행 정진하셨다. 보살님은 군인인 안장수 각자님의 임지를 따라 여러번 이사를 했지만 매일 진언 염송을 놓지 않았다. 그만큼 진언염송은 보살님 가정의 생활이자 신앙이었다. 그렇게 시간의 흘러 청춘은 백발이 되었지만 염송 정진에 대한 마음은 금

강같이 굳어졌다.

백영숙 보살은 사위가 정치를 함에 있어 언제나 공평한 부처님의 자비심을 마음 바탕에 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기를 오늘도 비로자나 부처님 전에 간절히 서원했다.

15세에 서울대에 진학한 천재소년

이제 기억에는 희미해져 가지만 20여년전 15살의 어린 소년이 서울대에 합격해 화제가 된적이 있다. 소년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과학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낯선 타국에서 5년의 노력 끝에 박사학위 취득과 함께 미국 유수의 알라바마 주립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가 바로 덕화사 송봉득 보살(85세)의 장손인 한해민 박사다. 덕화사 창립 교도인 보살님은 44세에 입교하여 단 하루도 빠지는 날 없이 서원당에 나와 정진 하신 금강같은 수행을 가진 교도이다.

송 보살님의 장남인 한갑수 각자와 며느리 위명자 보살의 외동 아들로 태어난 한해민군은 어려서부터 깊은 생각을 하는 아이였다. 97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홈스쿨링으로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한 박사는 컴퓨터를 좋아하는 적성을 살려 일반인 문제고등학교가 아닌 특성화 고교인 대전전자정보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때는 법률에 관심을 가지고 독학으로 사법

고시에 도전하기도 했다.

젊은 나이에 전세계의 수재들이 보인다는 미국에서 당당히 교수가 된 한해민 박사의 어린 시절은 할머니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형제사인 아버지와 교사인 어머니 그리고 자애로운 조부모의 사랑과 관심속에 성장한 한 박사는 대학시절 공부법에 관한 책을 출판하여, 그 수익금을 자신의 출신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항상 사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 세심한 관찰과 깊은 생각을 하는 조금은 어른스러운 아이였다고 전한다.

할머니 송봉득 보살도 그런 손자를 보며 대견해 했다. 항상 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하였고, 밤낮으로 진언 수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다.

송 보살님이 총지종을 알게된 것은 이웃의 박재성 보살을 통해서였다. 당시 정각원 스승님의 법력이 부산 시내에서 자자할 때다. 구포시장에서 식료품 도매로 안정된 사업을 하던 중 만난 고난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정각원 스승님을 찾아갔다. 단번에 스승님은 송보살의 손을 잡고 진언 수행의길로 인도했다. 처음에는 이게 뭐 큰 수행이 될까하는 의문에 사로 잡히기도 했다. 염송을 하면 할수록 치츄 마음은 편안해 지고 안정을 되찾았다. 그렇게 수행을 한지가 벌써 40여년이 흘렀다. 오늘도 매일 새벽 정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송 보살님의 얼굴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편안하다.

덕화사=김종열 기자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관 성 사	황 성 녀	3/2	10,000
기로스승	인 선	3/21	20,000
	해 정	3/24	10,000
	대 관	3/21	10,000
	밀 공 정	3/21	10,000
	법 수 원	3/21	10,000
	법 장 화	3/21	10,000
	법 지 원	3/21	10,000
	불 멸 심	3/21	10,000
	사 흥 화	3/21	10,000
	상 지 화	3/21	10,000
	수 증 원	3/21	10,000
	선 도 원	3/21	10,000
	총 지 화	3/21	10,000
	일 성 해	3/21	10,000
	원 봉	3/10	10,000
	지 선 행	3/10	10,000
개 천 사	이 희 권	2/26	10,000
	이 복 남	3/2	10,000
	강 순 시	3/14	20,000
	전 세 영	3/7	30,000

단 음 사	법 연 지	3/10	10,000
밀 인 사	정 정 희	3/2	5,000
	이 기 상	3/7	10,000
	안 옥 진	3/7	10,000
	이 성 수	3/7	10,000
	박 주 연	3/7	10,000
	이 수 연	3/7	10,000
밀 행 사	무 명 씨	3/10	10,000
벽 룡 사	양 정 현	3/2	10,000
	양 지 현	3/2	10,000
백 월 사	박 종 순	3/11	5,000
수 인 사	정 순 득	3/15	10,000
수 계 사	안 주 화	3/8	10,000
	안 주 화	3/16	10,000
	안 주 화	3/21	10,000
선 립 사	심 지 장	3/14	10,000
	이 복 선	3/14	10,000
실 지 사	조 성 우	3/3	10,000
일원어린이집			
	하 재 희	3/4	60,000
	하 재 희	3/25	50,000

	강 경 화	3/25	10,000
	이 준 동	3/25	10,000
	김 지 영	3/25	10,000
	김 용 미	2/29	10,000
	구 미 자	2/29	10,000
운 천 사	무 명 씨	3/23	20,000
정 각 사	변 순 개	3/7	10,000
	조 성 화	3/25	10,000
	김 문 수	3/8	10,000
	탁 상 달	3/21	20,000
지 인 사	승 효 제	3/10	10,000
	허 성 동	3/15	30,000
초록어린이집			
	황 화 성	3/25	30,000
총 지 사	박 정 희	3/23	10,000
	신 용 도	3/23	10,000
	손 경 옥	3/19	1,918
혜 정 사	정 은 선	3/7	10,000
	최 영 래	3/21	10,000
화 음 사	무 명 씨	3/2	10,000
홍 국 사	지 정	3/10	40,000

사원명무기명
김 갑 선 3/21 10,000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중앙총의회 의장 수현 정사

어느덧 세월은 연등이 춤추는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은 바다를 마주한 도시라 계절이 바뀔 때면 바람이 심하게 불니다. 올 봄 바람은 유난히도 세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다가오는 경제상황과 시시각각 위협하는 북한의 핵문제. 이웃 나라 일본의 지진 재난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월입니다.

중앙총의회 의장 우리는 누구나 부처입니다.

부처님 탄신일을 맞이하는 불자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보다는 걱정의 그늘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세상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오셨습니 다. 빈부의 귀천도 없고 모두가 저마다의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려 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주치는 모든 유, 무정의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예를 갖추어야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부처라 생각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만 중생은 나를 부처로 대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처로 대한다면 내가 사는 이곳은 바로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경전에서처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된 곳은 아니지만 누구나 불성으로 삼독을 끊어내고, 번뇌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열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자여러분 부처님은 사원에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숨 쉬고 서있는 이 사바의 세상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부처의 마음과 눈으로 자비로운 세상을 열고, 지혜를 실천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극락이요, 무여 열반의 길인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인 세상, 지금부터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성도합니다.



▲ 서울경인교구장 법경 정사

불기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편만하기를 발원하나이다.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는 가정에는 화합과 즐거움을 빛을 내려주시고, 병들고 신음하는 병자에게는 약사유리광의 빛이 되어 오통선약의 광명으로 씻은 듯이 병을 낮게 해주

서울 · 경인교구 교구장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시고, 어려움과 곤란함에 가로막혀 있는 중생에겐 용광로와 같은 빛과 열로써 장애와 어둠을 녹여주소서.

비로자나부처님과 제불보살님께 간절히 발원하오니 저의 발원을 성취될 수 있도록 가피력을 내려주소서.

부처님이시여, 거리마다 집집마다 연등을 밝히오니 중생들로 하여금 마음에 빠져 있는 가정에는 화합과 즐거움을 빛을 내려주시고, 병들고 신음하는 병자에게는 약사유리광의 빛이 되어 오통선약의 광명으로 씻은 듯이 병을 낮게 해주

안정과 풍요로운 등불을 내려주소서. 용기와 희망, 사랑과 나눔, 배움과 배려가 있게 하소서. 굳은 신심과 불퇴전의 정진력을 내려주소서.

등불처럼 환하고 밝으며, 보름달처럼 둥근 마음을 갖게 하소서. 광대원만한 등불이 되게 하소서.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있게 하시고, 관세음보살의 자비광명을 두루 차게 하소서.

우리 모두 지극한 발원과 함께 환하고 밝은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옵마니반배후.



▲ 부산경남 교구장 정인화 전수

초파일일 다가오면 우리 불자들은 작은 정성들을 모아 저마다 크고 작은 연등 공양을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모두가 부처님 오신 참 뜻을 기리며 온 세상이 법의 등불로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세계는 미움으로 얼룩진 폭력의 현장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전쟁의 소용돌이에

부산 · 경남 교구장 실천적 행동으로 진리를 구하자

빠진 지역은 저마다 자신의 목숨마저 위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으로 질병으로 많은 어린 생명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불자여러분 부처님 진리는 모두가 번뇌 없는 열반에 이르러 욕도윤회의 사슬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이는 끊임없는 자기 수행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보시의 실천만이 가장 가까운 실천의 방법입니다. 나의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소유물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나눔은 가난의 어둠 속에 해매는 어린 생명들을 구할 수 있고, 욕심으로 비롯된 다툼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잠재울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실천적 행동으로 진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도 모든 욕심과 번뇌를 진언염송으로 떨쳐버리고, 진리를 실천하는 큰길로 나가기를 서원합니다.

불자여러분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 대구경북교구장 안성 정사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금년에 맞이하는 부처님오신날은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이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이세상은 참

대구 · 경북 교구장 자비를 베풀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워 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과 열반입니다. 이를 깨달음, 즉 성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혜의 증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과 성불, 지혜는 자비에서 나오며 또한 자비에서 바른 지혜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비와 지혜가 상입상즉의 관계로 양날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가 없는 지혜는 지혜라 할 수 없고 지혜가 없는 자비는 자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비에 바탕을 둔 지혜라야 참다운 지혜라 할 수 있으며, 지혜가 있어야 바른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정진수행 가운데서 자비심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자비심이란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아낌 없이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인색함과 탐심을 버리는 가운데 자비심은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자비를 베풀시다. 성도합니다.



▲ 충청전라교구장 지정 정사

불기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과 교도님들의 재난이 소멸되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두손모아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참 뜻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같이 절대 평등한 불성(佛性)

충청 · 전라 교구장 불성(佛性)을 지닌 주인된 삶

을 지니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올바른 깨달음을 열어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축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인도 카필라왕국의 태자의 몸으로 강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도 하시어 큰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들에게 해탈의 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톨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실 때 사방으로 일곱 겹을 걸으시고 하늘과 땅을 가리키시며 “天上天下(천상천하)唯我

獨尊(유아독존)”이라 외치셨습니다.

이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가정의 주인이며, 사회의 주인이고, 국가의 주인, 나아가 세계의 주인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주인처럼 생활하고, 행동하는 이의 삶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고, 의미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과 달리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차별과 분별심을 버리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 인류가 지향하여야 할 공

동체 삶의 모범을 제시하셨으며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회향하셨습니다. 바로 상의상존(相依相存)해야 하는 공동체의 원리, 베풀고 나누이 있어야 하는 공존(共存)의 법칙을 대중 속에서 시현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지 말고, 무명(無明)과 이기심(利己心)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부처님 열반과 해탈의 세계로 제도하는 일이며, 불의와 증오로 가득한 원망의 마음을 버리고 자비(慈悲)와 은혜(恩惠)의 마음자리로 바꾸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실천하고, 대립과 갈등의 질곡을 벗어나 해탈과 열반의 길로 인도되시고, 각 가정과 이사회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지 면 안 내

- 1면 제87회 춘계 강공회 봉행 통영 단양사 헌공불사
- 2면 김기자가 가다(부산 덕화사)
- 3면 교구장 봉축사
- 4면 주요종단 중정 봉축 법어
- 6~7면 특집 - 부처님 오신날 생활불교 인간불교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화령 정사)
- 8면 밀교 연재
- 9면 춘계강공회 교육특집
- 11면 불교문화산책

새로운 중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 (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눕시다

관 성 사	황 성 너	3/30	10,000
	김 홍 조	4/14	10,000
	수 정	4/25	30,000
	인 선	4/22	20,000
기로스승	대 관	4/22	10,000
	밀 공 정	4/22	10,000
	법 수 원	4/22	10,000
	법 장 화	4/22	10,000
	법 지 원	4/22	10,000
	불 멸 심	4/22	10,000
	사 홍 화	4/22	10,000
	상 지 화	4/22	10,000
	수 중 원	4/22	10,000
	선 도 원	4/22	10,000
	총 지 화	4/22	10,000
	일 성 해	4/22	10,000
	원 봉	4/14	10,000
	지 선 행	4/14	10,000
개 천 사	이 북 남	3/30	10,000
	강 순 시	4/14	10,000

단 음 사 밀 인 사	전 세 영	4/5	30,000
	법 연 지	4/14	10,000
	정 정 회	3/30	5,000
	이 기 상	4/11	10,000
	안 옥 진	4/11	10,000
	이 성 수	4/11	10,000
	박 주 연	4/11	10,000
	이 채 원	4/18	10,000
	이 연 주	4/18	10,000
	이 수 연	4/11	10,000
벽 롱 사	양 정 현	4/10	10,000
	양 지 현	4/10	10,000
수 인 사	정 순 득	4/15	10,000
	회 비	4/1	20,000
선 립 사	심 지 장	4/14	10,000
	이 북 선	4/14	10,000
실 지 사	강 병 성	4/14	20,000
	이 순 명	4/14	20,000
	송 우 섭	4/1	10,000
	정 경 자	3/29	10,000

일원어린이집	하 재 회	4/25	30,000
	강 경 화	3/27	10,000
	이 준 동	4/25	10,000
운 천 사	구 미 자	3/30	10,000
정 각 사	무 명 씨	4/18	20,000
	변 순 개	4/7	10,000
	조 성 화	4/25	10,000
지 인 사	탁 상 달	4/14	20,000
	승 효 제	4/14	10,000
자 석 사	허 성 동	4/18	30,000
	신 말 심	4/22	20,000
초록어린이집	황 화 성	4/25	30,000
총 지 사	박 정 회	4/17	10,000
	법 등	4/1	30,000
	백 지 순	4/1	30,000
	신 용 도	4/17	10,000
해 정 사	최 영 레	4/21	10,000
	최 영 레	4/20	10,000
화 음 사	무 명 씨	4/1	10,000

인간방생	4/12	40,000
흥 국 사 지 정	4/14	20,000
사원명무기명		
김 갑 선	4/19	10,000
김 형 완	4/5	100,000

3월26일부터 4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각고(刻苦)의 정진수행으로 참나를 깨닫기를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사바에 오신 진리는, 농부는 밭 갈고 씨 뿌리며 땀 흘려 농사지어 추수하는 기쁨의 웃음소리 가득하고 노동자는 산업현장에서 망치 소리와 기계 소리가 켜 없이 울려 퍼지고, 남북한 동포들이 조국강산(祖國江山)에서 각자 맡은바 직분(職分)에 충실할 때, 그 날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며, 그 고통을 덜어주고 대신 앓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대승보살도(大乘菩薩道)를 시현(示現)하는 그 곳이 부처님 오신 도량입니다.

우리겨레의 엄숙한 소명과 책무(責務)인 조국이 하나 되어, 남북동포가 겨레의 열과 동질성(同質性)을 회복하여 서로가 일싸안고 추추며 태평성대(太平聖代)를 구가하는 그 때가 부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과학의 본질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구촌의 평화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중생들의 탐욕(貪慾)으로 인해 인간존엄(人間尊嚴)과 생명존중이라는 절대적 가치가 전도(顛倒)되어 가궁(可憫)할 무기를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 도리어 인류의 안전과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생명을 경시하고 무상(無常)한 물질을 숭배하는 이 깊은 병통(病痛)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화두(話頭)를 들고 각고(刻苦)의 정진수행으로 일념삼매(一念三昧)에 들어 참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주만유의 본질인 생명의 존엄성과 우주(宇宙)의 원리를 자각하여 일체중생(一體衆生)이 비애(悲哀)와 고뇌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실상(實相)을 현실세계에서 수용(收容)하여 대자유해탈(大自由解脫)의 경지(境地)에 이르도록 합시다.

불기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진제 법원

부처님보다 더 가져서 중생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 성품 빛나고 있듯 행복도 고통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구나.

역경 속에서 희망의 씨앗 자라고 있으니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도리가 여기에 있도다.

마주 하면 떠오르는 해가,
등을 돌리니 지는구나.
부처님오신날을 지극히
맞이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살아보면 짧기만 한 인생,
허망한 범부의 삶이라.
팔만 사천 법문도
모자라 채우고 또 채우려
애를 쓰는구나.

부처님보다 가진 게 없어
범부가 아니라 더 가져서
중생인 것을 잊지 말라.

오늘은 비우고 비워
무심(無心)으로
아기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날

병신년(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 천태종 종정 김도용

나누면서 상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서원의 날



혜조 스님
태고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께서 무명 속에서 부처를 찾아내는 밝은 길을 알려주고자, 자비와 지혜의 화신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즉 여래라는 희망의 종자를 가지고, 모든 중생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의 길을 몸소 실천해보이시기 위해서, 사바세계에 현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석존의 이러한 숭고한 뜻을 잘 받들어서,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중생을 내 몸같이 수용하고, 더불어 그 아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주고, 나누면서 상생하는 삶을 실천하는 서원의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을 모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수없이 많은 인류의 끊임 없는 고통과 괴로운 삶을 외면하지 않고,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 오신 뜻의 근원이고, 영기적 세계관의 실천이며, 올바른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난한 여인이 지극정성을 다해 등을 췌다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말씀처럼 우리도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성을 일깨우고, 어둔 마음을 밝히기 위해 지혜의 등불을 켜는데도 진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본래는 범부요, 성인이라는 분별도 없으나 어둠의 미혹으로 인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부처님 현신하신 인연으로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등불을 밝혀 모든 분들이 부처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2016)년 부처님 오신날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조

불일佛日을 밝혀 현세를 정화합시다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무우수無憂樹 꽃비 흘날리는 사월 초파일
광명을 놓아 세상의 못 아픔을 쉬게 하려고
부처님이 귀하신 몸을 사바에 보여주시니
군생群生이 봉축하고 새날을 열어가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신심을 다독여 서원합시다.

부처님은 시공에 걸림이 없이 거래금 자재하여
중생이 있는 곳마다 자비의 손길을 내리시나
삼독三毒의 미혹은 사심私心을 치정하게 하고

아상我相의 덮이 공도公道를 어지럽게 하여도
청량한 감로법음甘露法音만은 귀담아 들읍시다.

미증유의 첨단기술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물질문명의 혜택이 운해雲海처럼 넘쳐나도
세상에는 여전히 귀천의 차별이 도를 더해가고
세사世事는 피아彼我的 시비는非에 빠져드니
자타일여自他一如의 불심佛心을 살려 구제합시다.

광복정국의 갈등이 사회의 혼란을 부추기고
병빈瘠病貧賤의 중생고衆生苦가 깊어갈 시기에
각성종교覺性宗教의 자주실천의 중문을 일으키고
의되하는 습성과 비법非法에 집착하는 관습慣習을
밝게 정화淨化하신 진각성존의 원력에 귀명합시다.
일광日光은 먹구름 뒤에서 항상 빛을 내고
못 강물은 빠짐없이 바다로 흘러들 듯이
중생의 청정한 해일慧日이 어둠을 걷어내고
고하高下가 상보하고 빈부가 상생相生하여
화해의 온기가 봄기운처럼 가득 피어나도록
예경의 마음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합시다.

불기 2560년 초파일
대한불교진각종 총인 성초 합장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관 성 사

주 교 : 정사 인 선
전수 정계월
☎ 02-736-0950

밀 인 사

주 교 : 정사 원 당
전수 묘심해
☎ 02-762-1412

법 천 사

주 교 : 정사 법 경
전수 덕 현
☎ 031-751-8685

벽 룡 사

주 교 : 정사 법 일
전수 자 행정
☎ 02-889-0211

총 지 사

주 교 : 정사 법 등
전수 인덕심
☎ 02-552-1080

실 지 사

주 교 : 정사 법 우
전수 인지심
☎ 02-983-1492

정 심 사

주 교 : 정사 화 령
☎ 02-491-6888

지 인 사

주 교 : 전수 승효제
기로스승 지 성
☎ 032-528-2742

시 법 사

주 교 : 정사 서 강
☎ 032-522-7684

125회 총지종 중앙종회개최

관성사, 호성타운 신축 관련 사항 심의 결의



제125회 중앙 종의회(부산 정각사)

불교총지종 제125회 중앙종의회(의장 수현 정사)가 4월 20일 부산 정각사에서 열렸다. 이번 종의회는 4월 춘계강공을 앞두고 처리해야 할 안건들을 심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 관성사 신축 공사의 설계안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 처리했다. 관성사는 지상 5층으로 승의지구 재개발 단지 내에 건축된다. 종무원 숙소로 사용 중인 역삼동 호성타운으로 30여년이 지난 건축물로 심한 지반침하와 누수로 개보수보다는 신축이 용이하다는 사항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법륜회법 개정안과 기타 안건을 통리원으로 부터 보고 받고 의견을 개진했다.

실지사 손기성 각자의 차녀 손현경 보살

‘2016 코리아한복미인선발대전’ 미시즈 선(善)에 입상



▲ 실지사 손현경 보살

실지사 부림회 회장 손기성 각자의 차녀 손현경 보살이 ‘2016 코리아한복미인선발대전’ 본선에서 미시즈 선에 입상했다. 14일 서울 중구 필동 남산한옥마을 야외무대에서 (사)한복진흥회 주최 한복세계화추진위원회(위원장 김두진) 주관, (사)한복기술진흥원, 우리웃 협동조합 ‘미르’, (사)한국모델협회 후원으로 개최된 ‘코리아한복미인선발대전2016’은 세계 여러나라에 진정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알리는

민간외교사절을 선발하기 위한 행사로 전주상단 한복으로 진행됐다. 본선에는 총 53명이 진출하여 5일 동안 본선 리허설 및 소양교육을 마치고 본선 무대에 올랐다. 미시즈 부문 선에 입상한 손현경 보살은 대학에서 의상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어려서 부터 남다른 심성과 미모를 발휘했다. 주말에는 남편, 자녀의 손을 잡고 부모님(손기성 각자, 박순임 보살)과 함께 실지사 자성일에 동참하는 신심 굳건한 교도이다.

동국대, 건학110주년 ‘동국인 봉축 수계법회’ 봉행

이사장 성타스님 전계사로 지난 27일(화) 동국대 정각원서



동국대(총장 한태식(보광))가 건학110주년과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동국인 봉축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27일(수) 오후 4시 동국대 정각원(원장 혜원스님)에서 열린

수계법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교직원과 학생, 일반불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명과 계를 받는 수계의식을 갖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동국인으로 단합과 결속을 다졌다. 특히 <동감>, <참사랑봉사단>, <108리더스>, <불교청년지도자장학생> 등 학교 홍보와 봉사에 앞장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참, 학생 리더로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계대화상으로 계를 설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타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계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참된 제자로 거듭나는 것이기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자기 스스로의 다짐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앉아서 계를 받고 일어서서 어 길지라도 계를 받는 것이 최선의 공덕”이라고 가르침을 전했다.

불교총지종 복지재단 산하 어린이집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 성료
시설 점검 및 교육 방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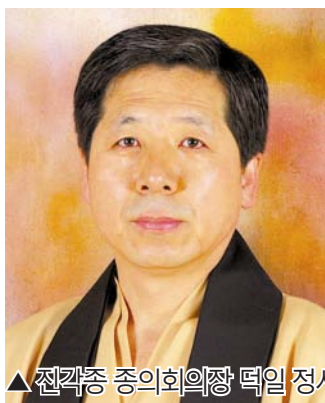


▲ 일원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어린이집, 초록어린이집,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2016년 제1차 운영위원회가 3월 31일부터 차례로 개최되었다. 복지재단, 어린이집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연간 4회 분기별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결산보고 및 시설 관리 및 점검, 원아 학습목표에 관한 토의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사회복지재단은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지원을 계속 할 예정이다.

진각종 제14대 하반기 종의회 의장에 덕일 정사 재선출

부의장 무외 · 원명 정사... 유지재단 임원 등 선출



▲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

진각종 제14대 종의회 하반기 의장에 덕일 정사(보원심인당 주교)가 재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는 4월 20일 오후 3시 진각문화전승원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98회 정기 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어 제적의원 37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들어가 보원심인당 주교 덕일 정사를 임기 2년의 제 14대 종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재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무외 정사(불정심인당 주교)와 원명 정사(대명심인당 주교)를 선출했다. 하반기 종의회 의장으로 재 선출된 덕일 정사는 “2년전 밝혔던 명품 종의회를 통해 명품 종단을 만들자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며 “하반기 종의회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의장 무외 정사는 “종단발전을 위해 종의회가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명 정사도 “종의회가 집행부와 상생해 종단 발전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종의회 의장 덕일 정사는 1986년 최정심인당 교화를 시작해 홍교부 문화국장, 심인고등학교 정교, 교육원 교법국장, 위덕대 교수, 위덕대 정교실장, 상석심인당 주교, 원선심인당 주교, 교법결집회의 실무위원, 대원심인당 주교, 밀교신문사 논설위원, 진선여자중학교 교장, 제9·13대 종의회 의원, 14대 전반기 종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원심인당 주교와 유지재단 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종의회는 이어 6월 20일과 8월 7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유지재단 이사 덕정 정사(밀엄심인당 주교)와 감사 도전 정사(신덕심인당 주교)를 유임키로 결의했다. 종의회는 이밖에 전기 69년도 결산안과 해인행 운영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불기2560 부처님오신날 기념 특별공개

‘보물 제1891호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범 스님)은 불기 2560(201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5월 5일(목)부터 최근 보물 제1891호로 지정된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을 특별 공개한다. 천수천안관음보살은 천 개의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응시하고 천 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이는 대자비를 상징하는 관음보살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변화관음(變化觀音)의 대표적 예이다. 2016년 2월 22일 보물로 지정된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하나의 얼굴과 42개의 손과 팔을 가진 이른바 1면 42수 관음보살상이다. 원래 천수천안관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으로 표현하여야 하나 이 보살상은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길수(吉數)인 40개의 손과 팔장을 하고 있는 두 손을 합하여 42수(手)로 표현한 것이다. 흥천사 금동천수관음보살좌상은 기록이 없어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얼굴의 모습, 신체의 비례, 화려한 장식 등이 고려-조선초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당시 조성된 작품으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매우 희귀한 예로 주목받고 있다.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정각사

주 교: 전수 법상인
전수 묘 홍
정사 혜 광

☎ 051-552-7901

관음사

주 교: 전수 정인화
☎ 051-896-1578

단향사

주 교: 정사 혜 봉
☎ 055-644-5375

덕화사

주 교: 정사 시 정
전수 원만원
☎ 051-332-8903

밀행사

주 교: 정사 도 현
전수 자인행
☎ 055-354-3387

법성사

주 교: 정사 법 선
☎ 051-468-7164

삼밀사

주 교: 정사 서 령
전수 혜원정
☎ 051-416-9835

성화사

주 교: 전수 금강륜
☎ 051-254-5134

실보사

주 교: 정사 덕 광
전수 보 현
☎ 052-244-7760

운천사

주 교: 전수 정원심
☎ 055-223-2021

일상사

기초승: 수 행 월
☎ 055-352-8132

자석사

주 교: 정사 수 현
전수 자심관
☎ 051-752-1892

화음사

주 교: 정사 록 경
전수 법수연
☎ 055-755-4697

부처님 오신날 특집

부처님 오신날, 생활불교 인간불교를



▲ 부처님 탄생불

연등회의 유래는 삼국시대부터

이번 달 5월 14일은 음력 4월 8일로 ‘부처님 오신날’이다. 과거에는 ‘불탄일(佛誕日)’이라고 하다가 불교도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지금은 ‘부처님 오신날’로 부르면서 전 국민이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이 날이 음력 4월 8일이기 때문에 흔히 ‘초파일’이라고도 한다. 불교계의 행사로서는 가장 성대하게 봉축되는 날이다.

‘부처님 오신날’의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신라 때의 불교의식인 팔관회(八關會)와 고려 때의 민속놀이였던 연등회(燃燈會)에서 시작된 것 같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를 보면 신라 효공왕 3년(서기 899년) 가을에 팔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 고려 태조가 이를 이어 받아 성대하게 국가적인 행사로 발전시켰는데 이때에 부처님 탄신도 함께 봉축했다고 한다. 그리고 고려 때에는 정월대보름에 14일, 15일 이틀간 등을 밝히던 연등행사를 했는데 이때에도 부처님 탄신을 봉축했다고 한다.

이것이 나중에 불교행사였던 팔관회(八關會)와 합쳐져 부처님의 탄신을 기리는 초파일 행사로 확대되어 전해졌으며 나중에는 민족적, 호국적인 전국민의 행사로 전해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말, 최이(崔怡)라는 문신이 팔관회와 연등회를 음력 4월 8일로 옮겨서 함께 행하게 했다고 한다.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서 지금도 초파일이 가까워 오면 사찰에서는 절의 안팎에 연등을 밝히고 거리에도 등을 내다 걸며 연등

행진을 하기도 하면서 탄신을 봉축한다.

이처럼 ‘부처님 오신날’은 신라의 팔관회, 고려의 연등회 등을 거치면서 불교 의식이 인간의 세시풍속과 자연스럽게 동화되면서 전 국민의 축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거족적인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부처님 오신날’이 세계적인 축제가 되어 연등 행사를 보려고 많은 외국인들이 이 시기에 맞추어 한국을 방문한다.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혹은 대만 등과 같이 불교가 번성한 나라에서도 우리와 같은 대규모의 연등행사는 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탄생일과 탄생연도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남방 불교권과 북방권의 날짜가 다르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서는 부처님의 탄생일을 음력 4월 8일로 알고 이 날을 봉축하고 있다. 그러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태국 등의 남방권의 불교에서는 베사카 달의 제8일 혹은 제15일을 부처님의 탄생일로 여기고 있다.

베사카 달은 대략 양력 5월에 해당되며, 그 달 가운데 8일이나 15일에 베사카 제를 지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고 한다. 정확한 달력이 없던 시절이라 대략적으로 이때쯤이라 여기는데 북방권의 음력 사월초파일도 대략 이때쯤이니 양쪽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어쨌든 부처님께서 화창한 봄날에 꽃이 만발할 때에 태어나신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어떤 날에 태어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불심을 더욱 키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가에 대한 기록도 명확한 것이 남아 있지 않지만 남방 불교 쪽에서는 스리랑카의 역사서인 《대사(大史)》나 아쇼카왕 석주(石柱)를 참고로 탄생연도를 추측한다. 대승불교권인 북방불교 쪽에서는 ‘중성점기설(衆聖點結說)’이라고 하여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부터 매년 점 하나씩을 찍어 기록한 것이 있어 이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불교학자들은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하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한 연도를 대략 기원전 566년, 560년, 그리고 466년과 463년의 여러 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 중 기원전 566년 설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인데 이 설에 따라 계산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80년의 생애를 보냈으니가 입적하신 연도는 기원전 486년이 된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연도를 계산할 때 ‘불멸(佛滅) 몇 년’ 하는 식으로 부처님의 돌아가신 연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서기를 예수 탄생의 연도로 기준하는 것과는 대조된다. 지금 우리가 쓰는 불기(佛紀) 몇 년 하는 것도 부처님의 탄생 연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입멸을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다. 올해가 불기 2560년인데 이것은 1956년 세계불교도우의회(WFB)에서 입적하신 연대를 통일해서 1956년을 불기 2500년으로 삼고 세계 공통의 불기로 쓰고 있는 것이다.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왜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부처님 탄신 연도로 따지면 올해는 불기 2560년이니가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는 2640년이 되는 셈이다.

부처님의 탄생설화와 탄생계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한 불교의 교조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더욱 철저한 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어느 종교나 비슷하지만 교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시대가 지남에 따라 신화적으로 운색되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의 생애도 후대로 갈수록 부처님의 위대함을 표현하다 보니 사실적인 묘사보다도 신화적인 색채를 많이 띠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현재의 우리들이 믿기 어려운 신화적인 부분은 그 상징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그분의 생애를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신화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신화에는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Siddhārtha)였다. 후에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 ‘붓다’로 일컬어졌고 ‘석가족’의 성자라는 의미에서 ‘석가모니(釋迦牟尼)’라고 일컬어졌다. 인도말로는 ‘사카무니(Sakya-muni)’라고 하는데 석가는 석가족을 가리키는 사카의 음사이고 모니는 성자를 의미하는 무니의 음사다. 따라서 사카무니는 사카족 출신의 위대한 성인이라는 뜻이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석존(釋尊)’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석가족의 성인으로서 세상에 으뜸가는 분이라는 뜻의 ‘석가모니 세존’을 줄인 말이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원래의 성인 ‘고타마’는 ‘가장 훌륭한 소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는 소를 신성시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이름으로서 석가족의 별칭으로 추측된다. 경전에 보면 ‘구담(瞿曇)이시여’ 하는

호칭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고타마를 한자로 음사한 것이다.

‘싯다르타’는 ‘모든 것을 성취한 사람’, 혹은 ‘일체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친은 석가(釋迦Sakya)족 출신으로 카필라바스투(Kapilavastu)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다. 부친의 이름은 싯도다나(Suddhodana; 정반왕(淨飯王))라고 했으며, 모친은 이웃 코리족 출신의 마야(摩耶Maya)라는 여인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삼촌이 백반왕(白飯王)이니 갈로반왕(甘露飯王)이니 하고 불렀던 것을 보면 석가족은 유목민 계통이 아니라 썰농사를 짓던 농경민족이 틀림없었다고 생각된다.

불전에 의하면 정반왕은 오래도록 아이가 없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해서 태안에 드는 꿈을 꾸고서 임신했다고 한다.

마야부인은 출산을 위해 친정에 가던 중 룸비니(Lumbini) 동산에서 부처님을 출산했다고 경전에서는 전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는 현재의 네팔 키투만두 서쪽 200km 지점에 있는 카필라바스투 근교에 있다. 룸비니에 있는 아쇼카왕의 석주에는 룸비니가 부처님의 탄생지이고 그 마을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룸비니라는 이름은 마야부인의 친정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동산을 만들어 주고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옛날 인도에는 출산할 때에는 친정에 가는 풍습이 있었는데 마야부인도 출산일이 가까워 오자 시종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도중에 마야부인은 갑자기 산기를 느껴서 룸비니 동산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동산이라기 보다 꽃이 만발한 화원에 가까웠는데 그곳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강남구 한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화령(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일반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

에 있는 무우수(無憂樹)라는 나무에는 꽃이 가득피어 있었다고 한다. 그 아래에 누워 잠시 휴식을 취하던 마야부인이 아름답게 핀 무우수 나무에 오른손을 뻗는 순간 태자가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하셨다고 한다. 무우수는 아소카나무라고도 하는데 흰 색깔의 꽃이 핀다고 한다. 목련의 일종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무우수라는 이름은 뒷날에 붙여진 것 같다.

태자는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왕절개수술에 의해 태어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말은 부처님의 전기를 쓴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사생계급 중에서 왕족에 속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인도의 신화에 의하면 바라문은 만유의 근원인 브라만(brahman)을 신격화한 바라문교의 최고의 신인 범천(梵天)의 머리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겨드랑이나 옆구리에서 태어나며, 평민은 무릎에서, 하층민인 수드라는 발바닥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부처님이 왕족이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내리라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며 한 손으로는 하늘을, 또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오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吾當安之-우주에 내가 가장 존귀하니 내가 마땅히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멸하고 편안히 하리라)’라는 그 유명한 탄생계(誕生偈)를 외쳤다고 한다. 어떤 기록에서는 단지 사방을 둘러보다가 일곱 걸음을 걷고 탄생계를 외쳤다고도 한다. 탄생계의 내용은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천상 세계나 인간 세계를 통틀어 내가 가장 존귀하며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편안히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뱀리야 경전에는 “나는 세상의 최상(最上)인 자다. 나는 세상의 최존(最尊)인 자다. 나는 세상의 최고(最高)인 자다. 이것이 마지막 삶이다.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고도 되어 있다.

탄생계를 외친 대목도 다분히 상징적인 신화적인 묘사이다. 방금 태어난 갓난동이가 일곱 걸음을 걸어 이러한 말을 외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탄생을 묘사하기 위하여 불전의 작가들이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또 상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육도 윤회, 즉, 여섯 종류의 윤회의 세계를 초월하리란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일곱 발자국이라는 것은 육도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탄생계에 나오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데도 일반 사회에는 유아독존이라는 말만 알려져서 무례하고 독선적이며 자기만 잘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유아독존’이라고 하니 뒤의 중생을 건진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부처님이 너무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아독존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 이 말은 부처님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모두 그렇게 존귀하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위대한 인간 선언이고 생명 선언이다 하면서 확대해석을 하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장면은 그저 진리를 깨쳐서 윤회의 속박을 해탈하고 무명에 가려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불타인 내가 건져주리라는 부처님의 탄생의 의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어쨌든 ‘부처님 오신날’ 행사시에 보면, 관불(灌佛) 혹은 욱불의식(浴佛儀式)이라고 하여 오른 손은 하늘

을 가리키고 왼손은 땅을 가리키는 아기 부처님에게 물을 끼얹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탄생계를 외치는 장면이다.

부처님의 탄생의 의미 인간에게 행복을 세계에 평화를

부처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쳤다는 탄생계 안에는 부처님의 탄생 의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 중생들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과 다름없다. 크나큰 자비로써 우리 중생들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일러 주신 것이다. 우리의 괴로움은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엄청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의 운명을 조작하거나 복을 주고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화복을 결정한다는 비밀을 알려주셨다. 물질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진보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고 청정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인간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가 태어났다 사라졌지만 불교와 같이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종교는 없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나 지금 세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테러들을 보면 불교가 얼마나 평화를 염원하고 실천하는 종교인지 알 것이다.

불교의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 이제 불교는 아시아를 벗어나 전 세계 지성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어떤 역사학자는 불교가 미래의 인류를 파멸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종교라고까지 말했다. 불교의 긴 역사를 통하여 볼 때 불교만큼 평화적인 종교는 없었다. 과거의 십자군 전쟁이나 기독교의 선교와 구교의 갈등에서 벗어난 살육, 이슬람의 아시아 정복 과정에서 일어난 엄청난 파괴 등은 차라리 종교가 없었더라면 인간들이 더 평화롭게 살 수 있었으리란 생각이 들게 한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테러라든가 중동의 중



▲ 부처님 탄신지에 세워진 “마야데비사원”

간 싸움은 모두 종교적 견해 차이로 인한 것이다. 다른 종교가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이와 같은 잔인무도한 행태들을 볼 때 모든 생명의 조화와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더구나 불교의 기본 교리는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우리의 탐진치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교도들은 먼저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하지 결코 외부의 적을 찾아 한풀이를 하는 일은 없다. 모든 것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불교도들에게 적이란 있을 수 없다.

불기 2500년 ‘부처님 오신날’을 계기로 우리 불자들도 이렇게 평화적이고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불교를 이웃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사회,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 그리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불교를 더욱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

신수봉행하는 불자로서 거듭나자 생활불교 인간불교의 실천자가 되어야

우리나라 불교인들은 여시아문(如是我們)만 알았지 신수봉행(信受奉行)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신수봉행’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받들어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신수봉행을 모른다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였지 믿고 받들어 행할 줄은 모른다는 말씀이다. 경전 문구를 달달 외우면서도 ‘신수봉행’이라는 마지막 구절은 실천할 줄 모르는 불자들이 많다. 불교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도 어려운 교리만 떠들면서 자기의 유익을 뽐낼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새겨두고 신수봉행 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입으로는 돈오(頓悟)니 돈수(頓修)니 하면서 단박에 성불할 것처럼 큰 소리 치고 간화선(看話禪)이 좋으니 묵조선(默照禪)이 좋으니 떠들어 봐야 기본 생활 태도가 부실하면 다 공염불에 불과하다.

불교가 일반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러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행위 하나하나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징검다리기가 되어야 하고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 일상에서의 오계 준수와 육바라밀의 실천 없이는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 없다.

250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생활불교, 인간불교를 실천하여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회적으로는 모든 구성원이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거듭 태어나자. 정성을 모아 등불을 밝히면서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고 우리의 마음도 환하게 밝혀보자.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쉼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27)

금강계만다라의 공양회 (供養會)

공양회는 그림1과 같이 금강계 구회만다라(九會曼荼羅) 중에서 왼쪽의 중단(中段)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미세회의 위쪽에 해당한다.

공양회는 기존의 성신회(成身會)나 갈마회(羯磨會), 삼매야회, 미세회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단지 오불(五佛)을 제외한 32존의 모든 존상(尊像)들이 그림2와 같이 손에 삼매야형을 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성신회나 갈마회, 미세회에서는 모두 존상(尊像)만 그려져 있고 삼매야회에서는 존상(尊像) 대신에 삼매야형이 그려져 있으나 공양회에서는 이들을 합한 것과 같이 존상(尊像)과 삼매야형이 동시에 그려져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존상(尊像)의 손에 연꽃이 들려져 있고 그 연꽃 속에 각각의 존상들의 서원과 공능을 상징하는 삼매야형이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존상에 삼매야형이 가미된 것은 여러 보살들이 공양 올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양회라는 용어에서도 약히 알 수 있듯이 불보살간에 상호공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로자나부처님께 올리기 위해 사불(四佛)이 출현시킨 사바라밀보살, 사불(四佛)에게 공양 올리는 16보살, 사불(四佛)의 공양에 대한 답례로써 비로자나불이 출현시킨 내사공양보살(內四供養菩薩), 다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사불(四佛)이 출현시킨 외사공양보살(外四供養菩薩), 마지막으로 비로자나불이 다시 그 답례로써 출현시킨 사섭보살이 32존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중앙의 비로자나불과 사불(四佛)에 대한 공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32존이며 금강계만다라의 공양회다.

공양회(供養會)는
불보살의 상호공양을 나타낸다.

32존 가운데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은 사불(四佛)이 중앙의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인데, 금강바라밀보살, 보바라밀보살, 법바라밀보



▲ 그림1) 금강계만다라의 공양회 (흰색 네모가 공양회다)-흰 박스 안-

살, 갈마바라밀보살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바라밀보살(四波羅蜜菩薩)은 중앙의 비로자나부처님을 중심으로 사방에 배치되어 있는데, 동방의 금강바라밀보살은 아축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을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견고한 보리심으로 중생들을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보살이다. 이 보살의 진언중자가 흙(hum)인데, 이 글자는 번뇌를 타파한다는 의미로서 곧 보리심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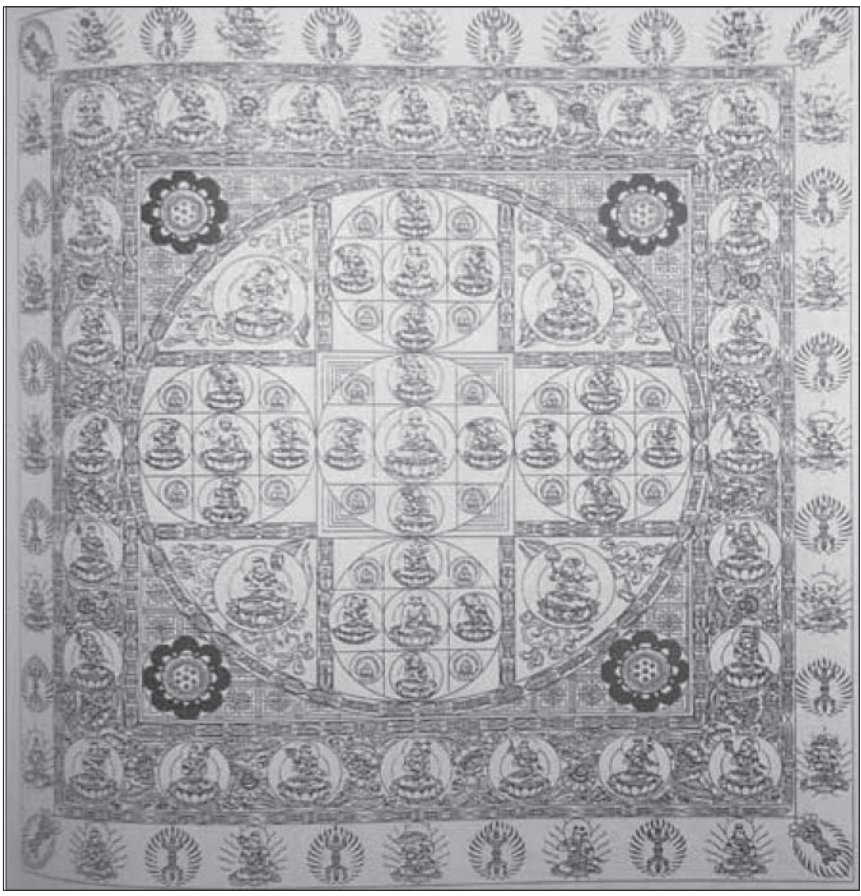
남방의 보바라밀보살은 보생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보(寶)와 재복(財福)으로써 중생들의 갖가지 소원을 들어 주는 보살이다.

서방의 법바라밀보살은 아미타불[무량수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제법실상(諸法實相)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연꽃에 비유하여 연화금강(蓮華金剛)이라 부른다. 갈마바라밀보살은 불공성취

불이 비로자나불에게 공양 올리면서 출현된 보살이며, 용맹정진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이들 사바라밀보살은 비로자나불에 대한 공양과 관련된 보살인 반면에 비로자나불을 제외한 사불(四佛)에 대해 공양 올리는 보살은 16보살이다. 16보살은 사불(四佛)을 중심으로 사방에 각각 4보살이 모셔져 있는데, 사방(四方) 사보살(四菩薩)로서 도합 16보살이다.(4×4=16) 16보살은 사불(四佛)을 중심으로 각 사방에서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행하는 보살이
16대보살과 8공양보살이다.

동방의 아축불에 공양 올리는 사보살은 금강살타, 금강왕보살, 금강에보살, 금강회보살이다. 이 보살들이 올리는 공양을 보리심공양(菩提心供養)이라 한다. 사방의 4보살이 보리심으로써 공양 올리



▲ 그림2) 공양회의 존상과 구조

로 보리심공양(菩提心供養)이다. 금강살타는 보리심을 견고히 하는 보살이며, 금강왕보살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보살이고, 금강에보살은 중생들의 보리심을 청정케 하는 보살이며, 금강회보살은 보리심으로 중생을 성숙시키는 보살이다.

남방의 보생불에 대한 공양은 관정공양(灌頂供養)이라 하는데, 관정(灌頂)과 예경 등으로 공양을 올리므로 관정공양(灌頂供養)이다. 사방에 금강보보살, 금강광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소보살이 있다.

금강보보살은 보생불께 예경을 올리는 보살이고, 금강광보살은 빛을 공양하여 중생들의 무지(無知)를 타파하는 보살이며, 금강당보살은 보생불께 당(幢)과 번(幡)을 공양하여 바람에 나부끼는 보시력(布施力)으로 중생들의 온갖 서원을 즉시키는 보살이다. 금강소보살은 보생불과 함께 수회(隨會)하는 보살로서 일체 중생

이 서원하는 바를 만족시켜 미소 짓는 보살이며 삼매의 즐거움과 그 즐거움의 미소로써 일체 중생에게 안락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보살이다.

서방의 무량수불에 대한 공양은 법공양(法供養)이라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法]으로써 공양을 올리므로 법공양이다. 사방에 금강법보살과 금강리보살, 금강인보살, 금강어보살이 무량수불께 공양을 올리고 있다. 금강법보살은 제법(諸法)이 본래정정하다는 가르침을 설법으로써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며, 금강리보살은 부처의 지혜를 나타내는 예리한 칼로써 중생의 일체고(一切苦)와 번뇌를 소멸시키는 보살이다.

이 보살의 중자가 담(dham)인데 이는 법(dharma)에서 파생된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을 음성으로 중생들에게 전달하는 보살이다. 금강인보살은 보리(菩提)의 인(因)을 구족한 보살로서 중생들로 하

여금 정법(正法)을 얻도록 하는 보살이다. 이 보살의 중자인 디(dhi)는 바로 보디(bodhi-보리)에서 나온 말이다. 금강어보살은 언어로써 부처님의 설법을 중생들에게 전하는 보살이다. 즉 설법의 언어(言語)로써 깨달음의 법문을 듣도록 하여 중생들의 미망(迷妄)을 타파시킨다.

북방의 불공성취불에 공양하는 것을 갈마공양(羯磨供養)이라 하며, 불보살의 각종 활동을 의미하므로 갈마공양이라 한다. 여기에는 금강업보살, 금강호보살, 금강아보살, 금강권보살이 있다. 금강업보살은 부처님의 중생구제의 활동을 가늠케 하는 보살이다. 금강호보살은 정진으로써 중생들의 몸을 보호하는 보살이다. 그래서 정진금강(精進金剛)이라는 별명을 갖는다. 금강아보살은 금강야차라고도 불리는데 중생을 괴롭히는 악인과 악마를 날카로운 이빨로 물리치는 보살이다. 마지막으로 금강권보살은 중생과 중생의 서원을 부처님과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보살이다.

이와 같이 16대보살은 보리심을 체(體)로 하는 금강살타로부터 시작해서 발심(發心)과 수행(修行)을 통해 그 마지막 단계로서 보리심을 굳건하게 감싸쥐는 금강권보살(金剛拳菩薩)로 끝을 맺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비로자나부처님께 공양 올리기 위해 사불(四佛)이 사바라밀보살을 출현시켰다고 했는데, 비로자나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써 내부(內部)의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을 출현시키고, 다시 사불(四佛)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외부(外部)의 사공양보살(四供養菩薩)을 출현시킨다.

이를 팔공양보살(八供養菩薩)이라 하며 실제로 공양물을 지니고 있다. 또 여기에 비로자나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섭보살(四攝菩薩)을 출현시키고 있는 것이 금강계만다라의 공양회다. 이와 같이 공양회는 불보살의 유기적 관계와 소통, 나눔의 상호공양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사인회(四印會)에 대해서 살펴 본다〉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이 사 장 : 인선 정사
정 교 : 법선 정사
교 장 : 탁상달
교 감 : 김재근
행정실장 : 석동훈
교 직 원 일 동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종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대승불교의 정화(精華), 밀교! 현대사회는 밀교라야



화령 정사(중앙교육원장/철학박사)

밀교의역사는 무시무중의대일여래와함께

밀교는 비밀불교(秘密佛敎)의 약칭으로서 비밀스럽고 심오한 여래의 진실세계를 상징적인 방법으로 수행자가 직접 체득하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말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불교의 교설(敎說)중에서도 가장 심오한 것으로 그 경지에 도달한 자 이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秘密」이라고 한다. 밀교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구현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지만 교리와 수행체계가 심오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불교를 전공한 학자라고 하여도 밀교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밀교를 오해하여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난 미신 혹은 신비주의로 간주한다. 그러나 밀교는 세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듯이 결코 불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대승불교의 연장선상에서 불교의 교학과 실

천체계를 종합하여 진리에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가장 고차원의 불교가 바로 밀교이다. 불교사에서 밀교의 기원을 찾는다면 그 기원이 단지 경전이나 의례에 다라니가 개입한 시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것에서 기원을 찾을 수도 있지만 인도의 밀교가들이 스스로를 ‘금강대승(金剛大乘)’이라고 부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어디까지나 대승불교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구도와 교화 정신을 되살리고자 했던 데에서 그기원을 찾아야 한다. 즉, 밀교 수행체계의 근본은 삼신의 조화를 이루어 진리를 몸소 체득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석존의 성도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밀교의 기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과정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밀교는 진리를 인격화한 법신이불(法身理佛)인 대일여래(大日如

來) 비로자나 부처님을 교주로 하기 때문에 그 기원을 단순히 인간의 역사로써 따질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부처님의가지와나의정진력으로

현교(顯敎)는 널리 대중에게 열려져 있으며 성불 내지 해탈에 도달하는 방법을 드러난 언설로써 나타내 보이는 가르침이다. 여기에 반하여 밀교는 신비성상정상의례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신밀구밀의 밀의 삼밀관행(三密觀行)을 통하여 법신불인 비로자나부처님의 비밀의 세계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즉신성불(卽身成佛)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밀교에서는 과분가설(果分可說)이라 하여 깨달음의 경지, 즉, 법신불의 자내중(自內證)의 경지를 대일여래께서 당체설법을 통하여 그대로 설하기 때문에 진실한 가르침이며 심비(深秘)한 가

르침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밀교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통찰하여 진리와 합일하려는 불교의 궁극을 지향하며 그 진리를 우리의 소신(마음을 포함한)으로써 체험하려는 가장 쉽고도 심오한 실천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현교에서는 단계적인 실천에 의하여 성불을 지향하지만 그 기간은 삼겁이 지나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밀교에서는 삼겁이 단지 우리 마음의 두께로 간주하여 삼밀가지(三密加持)의 수행이라는 독특한 수행법을 내세워 부처님의 가지력과 나의 정진수행력으로 즉신성불이 가능하다고 본다. 삼밀가지란 밀교의 여러 가지 관법과 비밀 의례를 통하여 대일여래와 내가 일체가 되는 것이다. 즉, 내가 불(佛)에 들어가고 불이 나에게 들어옴으로써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밀교에서는 불과 하나가 되는 입아아입(入我我入)의 이러한 관법을 중시하여 진언 염송 이외에도

월륜관(月輪觀)아자관(阿字觀)오상성신관(五相成身觀)오자엄신관(五子嚴身觀) 등 현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뛰어난 관법을 행한다. 밀교는 교학적으로도 반야에서 중관(中觀)유식(唯識)여래장(如來藏)사상 등 대승불교의 중심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종합했으며 아울러 정밀한 실천수행(實踐修行)의 체계도 제시했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불교의 최고의 가르침이 되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하여 뿌려진 불교의 씨앗이 소승에서 싹이 트고 대승에서 꽃이 피어 밀교에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현실긍정의 밀교, 총지종이 이끌어야

밀교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추구하는 본질

은 어디까지나 진리의 체득에 있다. 다만 거기에 도달하는 가장 뛰어난 방편으로서 밀교의 여러 가지 수법(修法)이 사용되는 것이다. 현교와 밀교의 구분도 결국은 밀교의 뛰어난 방편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밀교의 큰 범위 안에는 불교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폭넓게 불교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인들이 처한 열악한 수행환경과 이기적, 개인주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밀교야말로 현실을 긍정하며 가장 쉽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징후들은 유럽의 선각자들이 티베트 불교에 심취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우리 종단도 현대인들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교화방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의(法衣)와 금가사(襟袈裟)의 상징과 의미



법경 정사(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총지종 성직자의 법의(法衣)와 금가사(襟袈裟)는 밀교의 교리와 총지종의 교상(敎相)과 사상(事相)을 담고 있다. 먼저, 법의와 가사색상을 살펴보면, 종령님의 가사는 홍색 가사이고 법의는 황금색인데, 홍가사는 한국불교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가사색이고, 특히 예전부터 고승대덕들은 대부분 홍가사를 수(垂)하였기에, 총지종의 최고 어른이신 종령님의 가사색으로 홍가사를 취하였다. 법의는 황금색인데, 이는 밀교의 오불 가운데 태장계만다라의 중심불인 비로자나불을 나타내는 색상을 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색의 중심인 황금색을 종단의

의 최고 어른이신 종령님께 배대하여 중심 법의(法衣)임을 상징화한 것이다. 금가사는 일반 가사와 달리 약식(略式) 형태로서 목에 거는 옷깃 형태의 가사를 말하는데, 중국 당나라의 측천무후에게서 유래한다. 일반 성직자의 경우 금가사는 황금색(黃金色)이고 법의가 자색(紫色)이다. 자색 법의는 총지종의 교전인 ‘밀교장경’의 서두에 설하는 바에 따라 천식재 삼장이 중국 송나라 태종으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자주색 법의를 하사받았던 사실에 근거하여 밀교아사리인 스승님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자색을 취한 것이다.

황금색은 비로자나불의 중심색으로서 이미 종령님의 법의에 사용하였으므로 일반 성직자의 가사에만 대일여래의 황금색을 취하였다. 법의의 형태는 기존의 도포식(道袍式)에 전통 형태의 관복식(官服式)을 가미한 형식이다. 가사는 금가사로서 가슴 아랫부분에는 요대(腰帶)가 있고, 요대 아래에는 ‘수다라’고 하는 연꽃 매듭이 있다. 요대 가운데에 육합상이 있고, 그 속에는 ‘람’자가 있다. ‘람’자는 번뇌망상을 없애는 진언종자로서 총지종의 모든 의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자자이다. 람자를 관하고 있으므로 육합상 속에

람자를 배대한 것이다. ‘아’자, ‘밤’자, ‘람’의 범자(梵字)는 모두 적색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의 ‘번뇌망상을 타파하기 위해 동근 달과 같은 화륜(火輪) 위에 람자를 관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화’(火)의 색상이 ‘적색’이기 때문이다. 금가사의 목 뒷부분에는 총지종을 상징하는 육합상(六合相)이 새겨져 있다. 가사의 가슴 양쪽에는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범자가 새겨져 있다. 왼쪽에 태장계의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아’자(아비라함캄의 첫글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금강계 대일여래를 나타내는 ‘밤’자(옴 바즈라 다트 밤이라는 대일여래 중

자)가 새겨져 있다. 이는 총지종의 성직자가 곧 대일여래의 법신(法身)임을 상징한다. 성직자의 몸이 바로 만다라(曼荼羅)라는 것이다. 법의(法衣)는 양 소매 끝단에 각각 3개의 선이 들어 있는데 이는 삼밀(三密)을 상징하며, 모두 6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곧 행자(行者)의 삼밀과 불(佛)의 삼밀이 합일, 상응가지한다는 삼삼평등(三三平等)을 나타낸다. 법의(法衣)의 옆 술기에는 각각 6개의 주름이 있다. 이는 우주 삼라만상을 나타내는 지수화풍공식의 육대(六大)를 의미한다. 등 뒤의 중심선에는 좌우로 모두 4

개의 주름이 있는데 이는 사만(四曼)을 의미한다. 즉 우주 삼라만상의 체상용(體相用)인 육대(六大)사만(四曼)삼밀(三密)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의(法衣)와 금가사(襟袈裟)는 법신 비로자나부처님이자 양부만다라이며, 수행적으로는 일체 번뇌망상을 없애어 불신(佛身)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의(法衣)를 입고 있는 성직자는 곧 대각(大覺)의 사자(獅子)이며, 앉아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자좌(獅子座)이며 여래좌(如來座)이다. 이는 『대일경』에 이르는 말이다.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건 화 사

주 교 : 정사 법 상
전수 정 원
☎ 054-761-2466

개 천 사

주 교 : 정사 우 인
전수 보 명 심
☎ 053-425-7910

국 광 사

주 교 : 전수 혜 안 정
☎ 054-772-8776

단 음 사

주 교 : 정사 도 우
전수 지 현
☎ 054-333-0526

선 립 사

기로스승 : 보 원
심 지 장
☎ 054-261-0310

수 계 사

기로스승 : 안 주 화
☎ 054-745-5207

수 인 사

주 교 : 정사 안 성
전수 유 가 해
☎ 054-247-7613

승 천 사

기로스승 : 원 봉
지 선 행
☎ 054-746-7434

제 석 사

주 교 : 전수 행 원 심
☎ 053-743-9812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보물 제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金堤 歸信寺 大寂光殿)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6길 40,
귀신사(청도리)
시대 : 신라시대



▲ 화엄사 각황전

귀신사(歸信寺)는 신라 문무왕 16년(678) 의상대사가 세운 절로 8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전한다. 이 절에는 예스러운 맛이 배어 있는 건물과 연꽃무늬로 된 받침대, 동물 모양의 돌 등 많은 석물들을 볼 수 있다. 지혜의 빛을 비춘다는 비로자나불을 모신 대적광전은 17세기 경에 다시 지은 것으로 짐작된다. 앞면 5칸

옆면 3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보았을 때 사람인(人)자 모양의 맞배지붕이다. 지붕 처마를 받치기 위해 장식하여 짜은 구조가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이다. 앞면 3칸 문에는 빗살무늬 창호를 달았고, 오른쪽과 왼쪽 끝간인 퇴칸은 벽으로 만든 점이 특이하다. 자료제공=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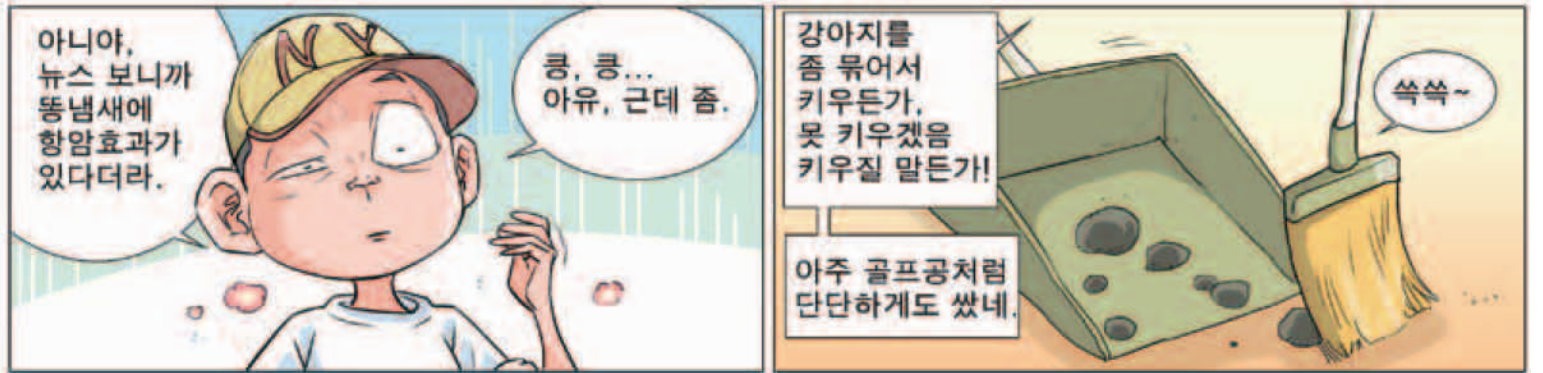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24. 군지수(軍持手) 진언



옴 바아라 서가로타 맘타
만약 범천에 나기를 원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내용참조: "불교총전" 교법편 49p-4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만 보 사

주 교 : 정사 승 원
전수 묘 원 화

☎ 042-255-7919

백 월 사

주 교 : 전수 환수원

☎ 042-527-5470

법 황 사

주 교 : 전수 수심정
기로스승 지 광

☎ 062-676-0744

혜 정 사

주 교 : 전수 진일심

☎ 043-256-3813

흥 국 사

주 교 : 정사 지 정

☎ 063-224-4358

중 원 사

주 교 : 전수 정정심

☎ 043-833-0399



나비 날개짓 하듯 100일간 이어질 ‘승무’

한영숙류 이은 춤꾼 이철진의 ‘100일간의 승무이야기’

1차 4월 26일~5월 29일, 2차 8월 2~31일, 3차 9월 20일~10월 23일

대학로 성균소극장 2관 - 스튜디오 SK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 고깔에 감추오고,

두 불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시인의 시 ‘승무’의 한 구절이다. 이 유명한 시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봄날 나비가 날개짓 하듯 승무공연이 찾아온다. 2008년부터 해마다 승무공연을 이어온 춤꾼 이철진이 올해도 ‘100일간의 승무이야기’를 대학로 소극장에 올렸다. 불교의식무에서 민족 무용으로 변모한 승무의 발자취를 따라 가보자.



▲ 100일간의 승무 이야기 포스터

승무, 불교의식무와 민속무용으로

춧불을 조명삼아 장삼을 길게 늘어뜨린 무용수가 고깔로 이마를 덮고 양팔을 천천히 편 후 부처님께 반배를 올리는 것이 승무의 시작이다. 승무는 두 종류가 있다. 불가에서 스님들이 추는 의식무용으로 전해오는 전통무용과 속인이 승복을 입고 추는 민속무용이 그것이다. 승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 만들어진 춤은 아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정립되어 왔던 몸짓으로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야 독립적인 춤의 장르로 정립됐다.

조선 중엽 이후 포교를 위해 스님들이 추던 승무는 탁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끝에



불교계에서는 스님들이 의식무가 아닌 속세에서 추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기점으로 속인들이 추는 민속무용으로서의 장르도 개척하기 시작한 승무는 엄불을 하며 시주를 받는 법고춤을 거쳐 기생 야성 학교인 권번으로 유입됐다. 승무가 기방에서 추는 춤이 되기 시작하면서 승무는 남성들이 추는 춤에서 여성들이 추는 춤으로 달라지게 된다.

불교의식무로서의 승무는 그 유래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할 때에서 찾는다. 네 가지 하늘색의 꽃을 내리니 가엽(伽葉)이 이를 알아차리고 방긋 웃으며 이 광경을 모방했다는 설이 있고, 음악의 신 건달바가 법화경을 설할 때의 광경을 온갖 풍류로 아뢰었다는 설이 있다. 위의 조자건이 천태산에 올랐다가 법전에서 들려오는 오묘한 소리에 고기떼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춤으로 옮긴 거라는 설도 있다.

민속무용으로서의 승무 쪽으로 오면 그 유래가 보다 더 다양해진다. △조선시대 명기 황진이가 미모와 능수능란한 풍류승씨를 빌려, 지족선사로 하여금 과거의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게 한 것이 시작이라는 황진이초연설(黃眞伊初演說) △상좌승이 스승의 기거법절(起居法節)이나 독경설법의 모습을 회화시킨 것에서 나왔다는 동자기무설(童子起舞說)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서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탁발수도에 나섰다가 깊은 계곡에서 8선녀를 만나, 한때 그 미색에 현혹되어 번민하였으나 광대무변한 불도의 참을 깨달아 해탈의 법열을 체현하게 되었던 과정을 무용화한 것이라는 구운몽인용설(九雲夢引用說) △‘산대가면극’ 가운데 노장춤에서 따왔다는 노장무유래설(老杖舞由來說) △과개로 환속한 자가 백팔번뇌를 이기려고 북을 두드리며 다섯 가지 후회의 심정을 춤에 담아본 것이라는 파계승변버

표현설(破戒僧煩惱表現說) 등이 있다.

경기 승무 · 호남 승무 양대 산맥

민속무용으로서의 승무는 현재 두 계파가 전승되고 있다. 하나는 경기 승무요, 다른 하나는 호남 승무다. 경기승무는 한성준에 의해 근간이 확립되고 전승됐다. 한성준은 외조부 백운채로부터 일곱 살 때부터 춤과 북을 배운 것을 시작으로 승무를 비롯해, 태평무, 학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냈다. 그런 그것기에 놀이판을 토대로 전해진 승무와 불교의식춤을 합쳐 경기 승무를 만들어낸 것이다.

당시의 불교의식춤이나 무속장단 속에 남아있던 춤과 음악의 기본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 받아 승무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성준이 이루어낸 춤은 모두 손녀 한영숙이 물려받았다.

승무의 다른 한 계파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이대조 계통을 이은 호남 승무다. 호남 승무는 1935년 경 이매방이 조부 이대조에게서 학습한 뒤 오랜 시간 그 원형을 보존 계승해 창조한 춤이다. 이매방에 따르면 호남 승무는 남도 소리를 하는 신방조에게서 이대조와 이매방에게로 전승됐으며 그 원형은 이매방이 간직하고 있고, 북가락은 박영구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한영숙 중심의 경기 승무와 이매방 중심의 호남 승무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전체 구성은 10개의 과장으로 이루어져 동일하다. 10개의 과장은 △염불과장 △염불 도드리과장 △타령과장 △갖은 타령과장 △긑거리과장 △갖은 긑거리과장 △느린 긑거리과장 △북 치는 과장 △당악과장 △느린 긑거리과장이다.

경기 승무 한영숙류 승무 만날 기회

4월 26일부터 서울 대학로 성균관소극장2관-스튜디오 SK에서 열리는 ‘100일간의 승무이야기’가 3차에 걸쳐 장장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경기 승무인 한영숙류 승무를 계승한 춤꾼 이철진은 서울예술대학을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현상학으로 석사를, 주역의 사팔이 해석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춤꾼이자 예술경영인, 공연프로듀서이다. 춤꾼 이철진은 한성준-한영숙-이애주-이철진으로 연결되는 전승계보를 가지고 있는 전통 한영숙류 춤꾼이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100일 승무’, ‘108승무 이야기’와 같이 대학로 소극장에서의 장기 공연을 처음으로 시도한 전통춤으로도 유명하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이번에 그가 공연에 올리는 사팔이는 한영숙 사팔이지만, 양복정장에 중절모, 구두를 신은 파격적 모습을 선보인다. 이에 대해 이철진은 ‘전통춤’이라는 뉘앙스가 고리타분하고 따분하여 애국심을 발동하여 감상하는 예술이 아닌, 시대를 초월한 작품으로서 현대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그는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한영숙류 태평무를 구사하는 유일한 남성 춤꾼이기도 하다. 한영숙의 태평무는 경기도당굿 장단에 맞춘 현란한 발놀음이 특징이며, 그 발놀음에 의하여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결정되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춤이기도 하다.

이철진은 이 공연을 통하여 ‘일년에 한번 애국심 으로 공연에 와 달라고 보체는 어린이가 아닌, 감동을 주는 공연을 정당한 댓가를 받고 파는 성숙한 장사꾼이 되고 싶어서’ 이 소극장에서의 장기공연을 기획했다고 한다. 특허국가 지원금에 의지하여

1년에 하루 공연해야 하는 전통예술의 한계에서 벗어나 관객의 입장료를 통하여 공연이 만들어지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만들고 싶었다고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승무 : 승무는 한영숙류 전통춤의 기본이 된다. 승무는 몸의 근본인 아랫배와 하체를 올곧게 잡아주는 느리고 깊은 발놀음에 이어 절제되지만 곧고 기운찬 뿌림으로 넘어가는 상체의 장삼놀음이 기본이 된다. 하체의 굽힘과 상체의 뿌림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응하고 보완하는 한국춤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승무는 한국춤의 시작이며 정점이다.

사팔이 : 사팔이는 승무와 더불어 우리춤의 정수로 평가된다. 형식적으로는 발산과 수렴, 한과 흥 그리고 굴과 신이 한 동작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적 전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팔이는 그 구조나 형식상 세계적으로 독창적이며 특이한 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 특유의 예술 춤이다.

태평무 : 태평무는 경기도당굿 장단에 조선조말 한성준이 춤사위를 덧붙여 만든 창작춤이다. 정적인 손놀음에 이은 빠른 발놀음이 특징이고 그 것에 의하여 몸 전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결정된다. 난해한 도당굿 장단과 어울려 최고의 기량을 요구하는 춤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10일에서 7월 3일까지 제2회 불교무용대전이 열린다. 이철진이 운영하는 구슬 주머니가 대한불교조계종과 손을 잡고 벌이는 불교 무용 공모전으로 지난해 처음 열려 불교무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공연문의 (02)747-5035/자유석 2만 원.

강지연 구성작가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서울경인교구

지 회 장 : 김 은 숙
부 회 장: 박 정 회
 손 경 옥
총 무 : 이 인 성
 홍 순 화
재 무 : 양 재 범
감 사 : 신 일 생
 이 연 수

부산경남교구

지 회 장 : 황 윤 희
부 회 장 : 류 길 자
 연 태 연
 이 지 은
총 무 : 조 향 선
 신 혜 영

대구경북교구

지 회 장 : 최 윤 정
총 무 : 권 순 복

충청전라교구

지 회 장 : 민 순 분
총 무 : 이 민 자

각 사원
신정회 회장과
임원 일동



불교총지중 신정회 일동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총기 45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불기 2560년 봉축 법요식

| 일 시 | 총기 45년 5월 14일 오전 10시
| 장 소 | 전국 서원당


불교총지종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928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연 등 회